

아시아나, 임금협상 ‘난항’... “산은 노사관계 개입, 경영권 침해”

4년째 이어진 임금협상 논의
역대실적에도 고통분담 직원들 강요
물가상승률 등 높은 수준 아니야
APU, 무제한 투쟁 돌입 할 수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임금협상 관련 1차 투쟁집회를 열고 있다. /APU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과 아시아나항공 사측이 지난해 임금인상률을 두고 이견의 폭을 좁혀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APU는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와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의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오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서 임단협 승리를 위한 1차 투쟁집회를 열고 이어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로 옮겨 집회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120여명이 참가했다.

앞서 노조와 사측은 지난해 말부터 2019~2022년 임금 협상 논의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인상안을 내놓으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통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산은을

비롯한 채권단은 4년간 총 2.5%의 인상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10%를 제시했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26일 연 2.5% 인상률 조정안을 노조에 제시한 후 새로운 인상률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고, 노조는 연 12.5%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하다 10%로 낮춰서 내놨다.

노조는 “회사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코로나 고통 분담을 직원들에게만 강요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10% 인상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채권

단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라”며 임금협상에 적극 응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항공업계에서는 엔데믹 진입에 사기 진작을 위한 임금 조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에 APU도 물러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실례로 대한항공은 지난해 총임금 10%를 인상한 바 있으며, 티웨이항공은 기본급 13%를 인상, 제주항공도 2023년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운항승무원을 제외한 전 직원의 기본급을 10% 인상하고 2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소폭이라도 전반적인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만약 산업은행의 요

구안대로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사실상 연간 인상률이 0.625%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당초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임금 인상률 절충안으로 연 7%를 제시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런 지점에서 채권단의 ‘경영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최도성 APU 위원장은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에 달하는데, 사측은 채권단인 산업은행 핑계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단이라도 노사관계까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날 APU 집회에 지지발언에 나선 최현조 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항공산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단체행동권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는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위기는 경영진의 배임, 횡령 등의 잘못 때문일 뿐 직원들은 헌신하기만 했다”며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한 데다가 물가상승률만큼은 임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PU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해 사측과 조정을 앞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 까지 서울지노위의 조정 절차를 거쳐 노사 간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APU 측은 3차례 조정을 진행한 뒤에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하고 무기한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노조는 2023년도 임금협상은 이번 협상과 함께 이뤄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의사도 밝혔다.

다만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항공산업은 ‘필수공익사업’이기에 파업기간에도 모든 조합원이 참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규정상 파업 중에도 국제선은 80%, 국내선 50% 이상 노선에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에 파업 참여 인원은 제한적이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는 대로 필수 업무 유지 기준 개정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국토부는 지난 10일부로 항공운송 마비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LG전자, 항균·수용성 ‘유리파우더’ 만든다

올 시장규모 기준 24兆 전방
신개념 기능성 소재사업도 추진
“ESG 경영 가속화 신성장동력 될 것”



LG전자가 개발한 유리파우더.

LG전자가 기능성 소재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추가로 확보한다.

LG전자는 유리 파우더를 생산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유리 파우더는 유리를 분쇄해 만드는 미세한 입자다. 화학적으로나 열적으로 안정하고, 변색이 없으며 내구성도 높다.

LG전자는 유리 조성 설계 기술과 가전제품 실사용 환경에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항균 성능을 더했다. 플라스틱과 섬유, 페인트 코팅제 등 소재에 첨가하면 항균 및 항곰팡이 성능을 추가할 수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정관 변경을 통해 ‘유리 파우더 등 기능성 소재 제작 및 판매업’을 추가한 바 있다. 1996년 유리파우더 연구를 시작해 특허만 219건에 달

한다. 경남 창원 스마트파크에 연간 4500톤 규모 생산 설비도 갖췄다.

실제 제품에도 적용해왔다. 2013년 북미에 출시한 오븐을 시작으로 오븐 내부 세척을 간편하게 하는 ‘이지클린’에 더해, 2022년부터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에 몸에 자주 닿는 플라스틱 부품에 항균 유리 파우더를 첨가해 위생을 강화했다.

아울러 LG전자는 유리소재 성분을 정밀하게 방출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수용성 유리 제품까지 개발했다. 물에 녹으면 무기질 이온 상태로 변해 바닷속 미세조류와 해조류 성장을 도와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데에도 활용할 수 있

다. 적조 현상을 줄이는 황토 대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LG전자는 항균 유리 파우더 사업을 시작으로 신개념 기능성 소재 사업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 규모는 기준으로 24조원 수준이 예상된다. 생태계 복원 시장으로도 확장하면서 ESG 비전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오는 22일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2023 부산해양주간’에 참여해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유리의 재발견’을 주제로 차별화된 기능성 소재 신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LG전자H&A사업본부장 류재철 사장은 “앞선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유리 소재가 가진 고유한 한계를 뛰어넘어 활용 영역을 지속 확장할 계획”이라며 “기능성 소재 사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며 ESG 경영을 가속화하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한화큐셀, ‘방음벽 태양광’ 시제품 최초 공개

부산서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가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오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가해 ‘방음벽 태양광’ 모듈 시제품을 최초로 공개한다.

한화큐셀은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청정 에너지관에 부스를 마련해 전세계에 공급하는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과 최신 태양광 기술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탄소중립 엑스포 등의 행사를 통합한 최대 규모의 기후산업 전시회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12개 기관이 주관한다.

이중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방음벽 태양광 모듈은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 기능과 빛을 흡수하는 빛 공해 저감 기능을 지닌 제품으로, 도로·철도의 방음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가하는 한화큐셀의 부스 조감도.

벽 역할과 전력 생산 역할을 동시에 한다. 고장, 화재, 스파크와 같은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해 차단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또 모듈을 수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소와 주된 발전 시간이 달라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 전력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애경케미칼, ‘가소제·윤활기유·폴리올’ 국제 친환경 인증

친환경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애경케미칼이 가소제와 윤활기유, 폴리올 등 3개 항목 제품군 전체가 국제 친환경제품 인증인 ‘ISCC PLUS’를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애경케미칼이 생산하는 가소제와 윤활기유, 폴리올 항목에 속하는 제품으로, 각각 재활용 PET를 활용하거나 친환경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다. 애경케미칼 측은 “친환경 저탄소 제

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고객사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는 물론이고 고객 제품의 ESG 경쟁력까지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ISCC PLUS 인증은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준으로 제품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친환경 원료가 사용됐음을 국제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로, 전 세계 130여 개 정유화학사와 원료 제조사 등의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애경케미칼은 공신력 있는 국제 인증

을 획득함으로써 친환경 제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관련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앞으로 꾸준히 ISCC PLUS 인증 제품군을 늘려갈 계획”이라며 “친환경 비전인 ‘Green Initiative 3050’ 달성을 선언하고 친환경 소재 중심의 사업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애경케미칼의 행보에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미 이데미츠코산과 양해각서 체결

금호석유화학은 일본의 정유 및 석유화학 기업인 이데미츠코산(Idemitsu u Kosan)과 바이오 SM(스티렌 모노머) 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의 스미토모상사(Sumitomo Corporation)는 양사의 협력을 조율하고 바이오 폴리머 시장 개발을 담당한다.

이데미츠코산은 일본 내 2위 정유사이자 최대 SM 제조사로, 금호석유화학은 이데미츠코산이 공급하는 바이오SM을 사용하여 주력 제품 중 하나인 고성능 타이어용 합성고무 SBR을 생산할 계획이다. 협력에 참여하는 회사

들은 2024년 말까지 구체적인 공급 방안 논의 및 생산 최적화 작업 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바이오 SM은 바이오 납사(Naphtha)로부터 만들어지며, 바이오 납사는 식물 유래의 원재료 등으로 제조한다. 전통적으로 에틸렌과 부타디엔 등 기초유분은 주로 원유에서 추출한 납사를 이용해 만들었으나,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협력을 통해 바이오 납사로 생산한 바이오 SM 사용을 확대하여 탄소 및 온실가스 발생량, 즉 탄소발자국을 감축할 뿐 아니라 ESG경영 협력 네트워크 역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